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0년도 표어 ⊗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8:29, 시37:4)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교회
- 2. 성수주일을 철저히 실천하는 교회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558-2107 www.seoulchurch.or.kr

✎ 에베소서 강해

### 새 사람

(에베소서 4:17-5:4)

사도 바울의 모든 책은 교리적인 문제를 먼저 다루고 이어 실천적인 교리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1-3장까지 역시 교리적인 문제이고, 4-6장에서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 1. 기독교인의 가치관

본문에는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의 가치관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에 좋아하던 것을 분토 같이 여겨야 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에 큰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 것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두 가지로 말합니다.

#### 2. 이방인의 삶

이방인의 삶은 완고함과 어두움, 죽음, 그리고 무모함입니다. 완고함은 굳어진 마음으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불의를 행하게 됩니다. 또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에서 떠나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무모하고 욕심에 가득 차 더러운 것만 쫓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은 후에는 이런 것들에서 떠나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 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 3. 새 사람의 삶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에베소 사람들은 본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이들이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은 대로 행하는 신행일치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품성을 배워야 합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듣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 4. 새 사람의 특징

그리스도인이 된 새 사람은 하나님 관계와 이웃 관계에서 참말을 하고, 분을 품지 않는 마음을 가지며, 근면하고, 선한 말을 하며, 용서하고, 감사하는 여섯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새 사람의 삶은 합당치 못한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며 옳지 못한 것을 버리고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삶입니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A new person

(Ephesians 4:17-5:4)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All the books written by the apostle Paul deal with doctrinal issues in the first half, and then move to address the practical issues afterward. The book of Ephesians does the same thing, treating doctrine in chapters 1 and 2 before discussing practical matters in chapters 4-6.

#### 1. The Christians' values

This passage describes the value system of a person who has come to believe in Jesus Christ, and has become new. Believing in Jesus means considering what we once thought good as decayed soil and now delighting in what the world does not recognize.

Underlying these new values, the Apostle Paul explained that there are two ways Christians are called and have become God's holy people.

#### 2. A Gentiles' life

A Gentiles' life is marked by stubbornness, darkness, death, and thoughtlessness. Stubbornness is the stiffening of the heart which prevents truth from penetrating into an immoral life. If our mind is hardened, it is only natural that we will continue to act immorally. Those who live in darkness do not want to keep God in their thoughts.

Those who do not keep God in their mind will ultimately move away from life and into death. Moreover, since they are thoughtless and filled with avarice, they will inevitably continue to pursue unclean things. However, the apostle Paul implores us, as those who have believed in Jesus, to leave these things and live according to the new values.

#### 3. A new person's life

How can we, who have come to our Christian faith as Gentiles, live in this life? It is worth noting that most of those who had received Paul's letter in Ephesus were originally Gentiles. The mere fact that they had now become new persons called to holy life was not enough to explain the details of the moral life. A new person needs to live their life by studying Jesus. They must learn Jesus' personality, and His character. They must live their life by hearing the words of Jesus. They must live by being taught by Him.

#### 4. The characteristics of a new person

A new person who has become a Christian must exhibit six characteristics in their relation to God and neighbor: they must speak the truth, not have anger in their mind, be diligent, speak gently, forgive one another, and give thanks. A new person must get rid of their indecent lifestyle, living instead with an uprightness in accordance with God's calling, throwing away all untruth, and acting justly according to what is right.

#### My beloved Christians!

As God's people, a holy people called by Him, I sincerely pray that you and I will live life of decency by calling upon the name of Jesus Christ.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케이■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BS(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예장 9개 교단 '연합총회' 결성

## 『한 교단 다체제』 제안 첫 결실

칼빈개혁, 합동연합, 합동경신, 장자, 연합, 합동개혁, 통합연합, 개혁, 합동총회 등 9개 교단이 예장 연합총회를 결성하고 한 교단 다체제를 실천하는 총회로 우뚝 서기로 했다. 지난 9월 16일 수원 영광교회에서 열린 연합총회에서 초대 총회장에 연합총회를 결성하는 데 산파역할을 한 진택중 목사를 추대했다. 진 목사는 "장로교 정체성을 회복하고 작아도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겠

다"는 포부를 밝혔다.

연합총회는 특히 지난 7월 한국장로교총연합회(회장 이종윤 목사)가 제안한 '한 교단 다체제'를 적극 환영하고, 하나의 장로교회에 속한 서로 다른 교파는 새로운 제안이 아닌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노력이라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이를 적극 이루어 나가기로 했다.

# 은혜중에 계속되는 2010 사명자대회

### 10월15일(금) 오후7시 현재 379명 참여, 성경 2독 통독 중



"하나님께만 영광!"(Soli Deo Gloria!)을 주제로 2010 사명자 대회가 은혜 중에 계속되고 있다. 현재 50일동안 24시간 계속되는 연속기도회에 성도들이 본인의 시간에 맞춰 책임 있게 참여하여 기도의 불길이 이어지고 있고, 릴레이 성경읽기는 현재 379

명이 참여하여 성경2독을 통독 중에 있다.

지난주 후보 칸지로 배부된 "태신자 카드"에 태신자를 작성하여 현금함이나 사무국으로 제출하기 바라며 태신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바란다.

# 2010년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 예선 : 오늘 각 부서별로 / 본선 : 22일(금) 오후 7시 - 602, 603, 609호

말씀 중심의 사도적 교회를 지향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훈련의 일환인 성경암송대회가 '로마서6-10장'(개역개정판, NIV)을 성경암송 본문으로 오늘 부서별 예선을 거쳐 오는 금요일 본선을 진행한다. 오늘 실시되는 예선은 부서별로 각 2-3명씩 선발하고, 유아·유치부는 특별참가한다.

본선은 22일(금) 오후7시에 602호, 603호, 609호에서 3개조로 나누어서 진행하여 대상 3명, 금상 3명, 은상 3명, 동상 3명을 선발하여 24일(주) 찬양예배 시간에 시상하고 암송을 한다.

성경암송대회 심사는 황광 목사, 김광신 장로, 최학인 장로(교육1-2국), 박광일 목사, 서문석 장로, 임상현 장로(교육3-5국), 조슈아 조 목사, 오광환 장로, 하영수 장로

(영어부)가 위원으로 수고를 하며 채점방식은 암송범위 및 정확도 70%, 태도 20%, 반응 10%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정확도(70) : 전체성경구절을 완전히 암송(한번수정허용)하는 경우 70점, 2회 수정시부터는 1회수정시마다 1점 감점, 틀리면 2점 감점, 빼먹는 경우는 분량 따라 감점
- 태도(20) : 자세는 청중을 끌고루 바라보아야 하며, 말씀에 따른 몸짓이 성숙화되어 단지 문장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포하는 모습의 정도에 따라 평가함(A:20점, B:15점, C:10점, D:5점, E:0점)
- 반응도(10) : 회중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으로 들려지며, 호응은 어떤가에 따라 평가함(A:10점, B:8점, C:6점, D:4점, E:2점)

수확을 위한 기도회

##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윤계진집사 (13교구)

많은 비와 함께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맞이하는 수확생 부모의 마음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겸손히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의 은혜만 바라며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입시준비를 위한 많은 정보를 알아야 하고 또 자녀에게 맞는 입시 전략을 짜야 하고 자녀의 공부와 시간을 관리해야 하는 등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보다 더욱 중요하고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수확생 부모들은 최양진

집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주일 낮 고등부 학부모 기도모임 시간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또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들어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그들을 부모인 저희 보다 더 사랑하시며 그들의 모든 필요를 저희 보다 더 잘 아시고 그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121:1-2)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말씀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도우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기대합니다.

# 2011년 교회봉사지원서 제출

### 10월 24일(주)까지 사무국으로

우리교회는 성도들의 교회봉사지원서를 바탕으로 2011년도의 부서별 운영계획을 세우고자 한다.

교회봉사지원서 제출은 예년과는 달리 올해에는 신규봉사자 또는 부서이동 봉사자 위주로만 받는다. 지난 주 후보 삽지로 배부된 2011년 교회봉사지원서를 작성하여 24일(주)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 2010 피택집사·권사 당회고시 및 면접

### 10월29일(금) 오후7시 801호

2010년 피택자 당회고시가 10월29일(금) 오후7시 801호에서 열린다. 면접은 오후7시 50분부터 8시30분까지 각 조별로 나누어 진행된다.

# 학습·세례식 거행



서울교회 당회 주관으로 지난 10월13일 수요일 1,2부 예배시 학습·세례식이 있었다. 서울교회는 매년 짝수달(격월) 3째주 수요일 1,2부 예배시에 학습·세례식을 거행하고 있다. 본 예식은 서울교회 3대 목표중 하나인 "천국시민양성"의 가시적 열매임과 동시에 본인에게는 신앙성장의 기회가 되므로 교구와 다락방 및 각 교회학교에서는 학습·세례대상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기 바란다. 사전 교육 및 신청절차는 새가족부 세례준비반(609호)에서 담당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례준비반 인터넷 카페(서울교회 홈페이지 ⇒ e공동체⇒세례준비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세례자> 김경남2 김규욱 김설아 김지연17 김형렬 박내길 박정순2 서담은 이금정 이삼순1 이소운 이영자9 이재희2 정소연1 정택영 조예은1 차소현 한혁수 (18명)
- <입교자> 김나무 박예지 박지혜 박한준 이유평2 임지수2 정휘준 (7명)
- <학습자> 김광배 김영복2 김용애 김인아 김현수7 노일영 배상준2 이지수3 임보빈 장수정 한용규 (11명)
- <유아세례자> 권예지 김창윤 김하진(3명)

목사이종윤 · 박사이종윤 - 목회자의 길 18

#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Deans court는 전통있는 기숙사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기숙했던 곳으로 이종윤은 북해가 바라보이고 종교개혁때 무너진 cathedral이 전면에 있는 방을 사용했다. 미국에서는 room-mate가 있었으나 영국 기숙사는 독방제였다. 때로 눈이 너무 피곤해서 안경을 몇 번 바꾸어도 보았지만 효과가 없어 눈 때문에 글자가 보이질 않아 울기도 했다. 도서관의 책도 많지만 독일어 책을 찾다가 없으면 도서관의 신학부 담당사서에게 적어내면 두 주 이내에 동독에서까지 책을 우송해 주니 공부할 맛이 났다. 아침에 도서관 문이 열리면 항상 제일 먼저 입실하여 전세계에서 도착한 정기 간행물(Periodical Journal)을 먼저 읽고 4층 연구실로 들어가면 여름엔 10시까지 해가 있으나 겨울엔 오후2시30분만 지나면 어둠이 깔린다. Gown & Grey(까운과 회색)이라는 별명을 가진 세인트 앤드류스는 대학과 하늘이 항상 잿빛으로 흐린 날씨로도 유명하다.



St. Andrews 해안기에서 - 뒤에 무너진 cathedral의 한면이 보인다.

이종윤은 St. Mary's College(신학부)에서 신약을 연구했다. 책상이 중세기때부터 사용하던 통나무로 두께가 15cm 정도 되고 의자도 고정되어 키 큰 유럽학생 체격에 맞추어서 인치 항상 천 채 엮어서 글씨를 써야했다. 책상엔 존 나스의 이름도 새겨있고 많은 졸업생들 이름을 갈로 파서 새겨놓아 이종윤도 그 흔적을 남겨 놓았다.

독일 튜빙엔 학과를 창시한 F.C. Baur와 D.F. Strauss의 책을 구해 읽었지만 그들의 출판되지 않은 강의 노트를 연구해야 그들이 주장한 바울의 신학과 오해된 역사적 예수문제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튜빙엔에 가서 학기 연구할 계획서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E.Jungel교수에게 편지를 하여 지도해 줄 것과 오는 길에 암스텔담에서 『바울과 예수』라는 책을 출판한 리더 보스 교수를 만나 지도부탁을 하고 독일로 출발한다.

문제는 여비가 미국의 아내로부터 도착하지 않아 이종윤은 기차표 한 장 사고 15pound를 들고 스코틀랜드에서 잉글랜드를 거쳐 도버해협을 배를 타고 지나 다시 유럽을 횡단하는 기차로 슈투트가르트까지 가서 다시 갈아타고 튜빙엔역에 도착한 시간은 토요일 새벽5시쯤 되었다. 독일의 날씨도 스코틀랜드와 별차이 없이 비가 내리는 음산한 늦겨울 날씨였다. 기숙사 예약이 되어 있어 기차역에 내리기는 했으나 택시값과 기숙사비 지불할 것이 비로소 걱정이 되었다. 열차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은 손길을 기다렸다. 튜빙엔역에서는 손님이 열 명 정도 내렸다. 기다리는 사람도 없으니 이종윤은 제일 늦게 내려서 천천히 플랫폼으로 나갔다. 키가 큰 어떤 젊은이가 이종윤의 앞을 가로 막고 서서 "당신이 이 기차에서 내린 마지막 사람이냐"고 좀 투박한 독일어로 묻는다. 이종윤은 즉시 독일사람은 아니로구나 직감하고 영어로 "그런 것 같다"고 대답을 하니 그도 유창한 영어로 응수하면서 "어디서, 무엇하러 이 도시에 오느냐"고 묻는다. "나는 신학을 공부하는 한국학생인데 스코틀랜드에서 이곳에 연구차 왔다"고 대답했다. 그는 자기는 "화란사람인데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이곳에 연구차 왔는데 오늘 이 기차에 친구가 온다 해서 마중을 나왔는데 오질 않았으니 네길이 바쁘지 않으면 자기 집에 가서 쉬었다 가면

어떻겠느냐"고 뜻밖의 제안을 한다. 이종윤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로 생각하고 그가 갖고 온 차를 타고 그의 집에 가서 몇일 밤 기차 안에서 새우잡을 잤으니 피곤한 몸을 목욕도 하고 독방의 침대까지 내주어 한 잠을 자며 폭취었다.

그의 말이 생각이 난 이종윤은 나도 미국에서 신학공부를 했는데 당신은 어느 학교에서 공부를 했느냐고 물으니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졸업했고 거기서 아내도 만났다고 한다. 그의 아내는 중국인이었다. 그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 것처럼 잘 준비된 중국음식 대접을 받았다.

그가 오늘은 토요일인데 Korean들이 예배드리는 곳이 있는데 가보지 않겠느냐고 해서 반가운 마음으로 가자고 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한국유학생 가족20여명이 모여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한신대 박봉량 박사님이 그곳에 연구교수로 와 계시면서 그날 설교를 하시기로 주보에 난 것을 보고 기대를 갖고 예배에 참여했다. 예배 10분전쯤 박봉량 박사께서 이종윤에게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날이니 특별강사로 모실테니 설교를 하라고 한다. 이종윤은 극구 사양했으나 어른의 명령에 결국 순종을 한다. 예배후 저녁 dinner 파티가 열려 불고기 포식을 하게 되어 잃었던 기력이 회복되었다. 한국인 간호사로 그 지역 병원에서 섬기는 김모 집사님이 오늘 설교에 정말 은혜받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오늘 아침 튜빙엔에 내리셨다니 오늘은 토요일이라 돈 바꿀 시간도 없으셨을터이니 제가 어제 수당을 받은 것 집에 그대로 갖고 있으니 몇일만이라도 쓰시라면서 자기 집에 가자고 한다. 실은 은행에서 바꿀 돈도 없었지만 은행문을 닫는 토요일인 것은 사실이니까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돈을 받고 보니 한달 생활은 족히 할 수 있는 액수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은 결코 공수포가 아니었다.

도서관 밖으로 갖고 나갈 수 없도록 특별한 방에 소장된 19세기 손으로 쓴 흘림체 강의 노트를 읽는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처음 며칠 동안은 하도 진도가 안나가서 몇 번이고 포기할까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볼 수 없어 흘림체 독일어 강의 노트를 영역하면서 읽어 내려가는데 복사도 할 수 없고 이런 속도라면 몇 년은 걸려야 할 것 같았다. 이를 악물고 눈을 비비면서 읽다 보니 두 주째는 조금 속도가 빨라졌음을 느꼈다. 한 달이 지나면서는 영어만큼은 안되지만 그런대로 취사선택하며 읽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한 학기를 지내면서 E. 웅헬 교수를 만나 Sprach ereignis(speech-event) 학설을 배우게 되고 토론을 했다.

세인트 앤드류스에 있는 동안 둘째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는다. 엄마가 미국에 있고 아빠는 영국에 있었다하여 미영이라 이름했고, 셋째는 아빠가 독일에 있을 때 태어나서 미경으로 지었다. 첫째는 모세가 태어나기를 소망하여 모세의 누이 이름처럼 미리라 했다. 가난한 유학생생활 동안 세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종윤은 영국유학 3년반만에 박사학위(Ph.D.) 논문의 초고를 만들어 매월 한 차례씩 지도교수의 검증을 받은 터라 그것을 들고 미국의 가족들에게 돌아온다. (다음 호 계속)

사명자의 기도

## 날마다 새로워지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년전 그 때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시고자  
서울교회를 구별하여 세워주시고  
이 사명 다하도록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직 한 길 하나님의 목회를 하시며  
영광의 많은 열매를 주님께 바치시고  
서울교회 사역을 마치시는  
이종윤 위임 목사님께  
이전보다 더 큰 사명을 주시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향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분열된  
장로교단이 하나 되는  
큰 역사를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  
박노철 목사님을  
서울교회에 보내주시심을 감사드립니다  
서울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계승되게 하시고  
참된 사도적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모범을 보여온  
서울교회가 계속 부흥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풍성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과 거룩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며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서로 연합하고 사랑함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웅선 장로

만민에게 전도 - 선교사로 부름받아

#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정상진, 홍성임선교사  
(플라우 파송예정)



사43:18-19 “너희는 이 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서울교회 선교사 인선 서류 마감날짜 이틀을 앞두고 극적으로 접수하게 된일로 시작하여 면접과 합격의 전화를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3개월 훈련을 받게 된것 모두가 은혜였고 감동그 자체이었습니다. 10년동안 주 파송후원교회를 위해 기도해왔는데 10년되는 날 기도가 이루어져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먼저 너무나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choosing), 부르시고(calling), 보내심을 받게(sendng)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선교사로 부르셔서 파송받게 하시니 너무 너무 감사한 것 뿐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일어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란 복음송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감사함으로써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과 교회 공동체(서울교회)를 통해 이루어 나가고 싶어 하십니다.

서울교회에서의 매주일 마다 들려주시는 설교말씀(레마)이 나를 위한 메시지로 얼마나 감동과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월요일 목회자 신학세미나로

시작하여 선교대학, 각종 열린 프로그램은 모두 저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간들이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서울교회에서만 있을 수 있는 특별화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무디어진 종의 심령에 지·정·의의 도전을 주는 시간들이어서 너무 귀한 시간이었으며, 군부대의 진중세례식의 감동과 남선교회 족구시합에서의 한팀 한팀 이기며 우승하는 장면을 통해 마음껏 소리치며 응원했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명자대회의 특별새벽기도와 이제 3개월의 목회동역과 교우들과의 코이노니아(교제)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먼 이국땅에서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일치의 삶과 십자가 정신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쉬지않고 정상 진료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군경철선교를 위하여, 기독교총학생회를 위하여, 마이크로네아시아의 목회자들의 영적성장을 위하여 기도부탁을 드립니다.

서울교회의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열방에 대한 선교의 헌신함이 불일 듯 일어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함께 사랑하며, 함께 기도하며,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서울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마리아 여성선교합창단(지휘:오정녀성도)의 찬양으로 드린다. 오정녀성도는 수도여자사범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탈리아 로마아카데미에서 지휘와 성악을 전공하였으며 미국 웨퍼드 음대 대학원에서 합창지휘를 전공하였다.오늘은 "사랑의 주 예수(Joseph M.Martin)"의 두곡을 고등부 반주자인 박승기 선생의 피아노반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 2010 가을 화요정오음악회



이번 화요정오음악회는 이한나 오르간 독주회(하나,의교회 지휘자, 성결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교수)이다. 이한나 교수는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 졸업(전문연주자 과정), 미국 University of Iowa 박사과정(D.M.A.) 졸업(오르간과 오르간 페다고지 전공), 현 성결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 등정

- 이종윤 목사는 제3차 세계복음화를 위한 로잔대회 참석차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으로 88명의 한국대표단을 인솔하고 14일(목)출국하였다. 성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득남: 박승현, 김윤미 성도(5교구)  
윤준호 집사, 권수정 집사(5교구)
- 개업: 박영애 성도(1교구) "가래 야구점" 송파구 가락동 174-11번지. 개통역 3번출구 3분거리 02-443-3960  
변희금 성도 (13교구) 카페리코(커피전문점) 대치동 989 태원리치 110호

- 주간식당봉사: 바울전도회(10.17) 엘리야선교회(10.24)
- 금주의 식사: 한정은 권사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 일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오 기 도 회	오후 8시30분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30분	

## 10월 성경통독자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필사3회> 이정연 권사(12교구)
- <3독> 안창휘 권사(2교구) 정봉금 권사(2교구)
- <1독> 김영준 장로 이남성 집사(9교구) 홍재식 권사(10교구) 김예환 권사(12교구) 정유정 집사(13교구) 곽태수 집사(14교구) 김민정 성도(16교구)

## 육군 제3사단 진중 세례식

3사단 십자군 교회, 우리교회 주관으로 지난 10월9일(토) 오후 2시 3사단 신병 교육대 십자군 교회에서 진중세례식이 열려 137명이 세례를 받았다.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울교회, 우리가정 되게 하소서
2.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3. 2010 사명자 대회를 위하여
4. 피택자들의 준비 과정 순조롭게
5. 국가의 평안과 복음화된 통일조국 실현위하여

### 교회오시는 길

